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중 군종목사

현재 ‘비전 2020’이라는 슬로건 아래 범교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진중세례식은 21세기 한국교회에서 학원선교와 함께 국내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왔다. 지난 50년간 군선교를 통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며 민족 복음화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군선교의 현장을 보다 냉정하고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21세기 병영환경과 선교적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각 부대별로 실시되고 있는 진중세례식은 그 열기나 성

과 면에 있어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군 당국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은 “절대로 인격지도 교육시 선교(포교)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03. 4. 25. 군종감실 업무보고서). 육군 제2훈련소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회집 인원과 수세 인원에 있어서 많게는 30%에서 10% 가량 수적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도 포교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신자확보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신교대대에 천주교공소 건립, 법당 건립, 군종장교의 재배치 등을 통해 전략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¹⁾ 본고에서는 한국 군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중세례운동에 대해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고 세례운동에 대한 반성과 회고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군선교의 새로운 중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세례의 성경적 의미

1) 어원적 의미

세례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새로운 은혜에 의한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됨과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 죄의 과오에서 깨끗함을 입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²⁾ βαπτ

■ 약력 :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Ph. D. 교회사)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중

1) 천주교의 경우는 연간 2만 명 정도의 병사들에게 영세를 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 천주교 전 성당에서 영세받는 신자 수의 절반에 해당된다. 불교는 ‘비전 21’이라는 슬로건하에 군을 포교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공세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존 머리, 「기독교 세례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p. 14.

τιζω는 물에 잠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넓게 본다면 물 속에 손을 담그고 씻는 것이나 또는 손에 물을 부어 손을 씻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세례를 βαπτίζω라 부르게 되었다.³⁾ 여기서 물에 잠그는 것 즉 침례만을 세례의 유일한 형식으로 주장할 만한 근거로서의 βαπτίζω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⁴⁾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의 세례란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24절), 둘째로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26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입게 되었다는 것(27절)이 그 핵심 내용이다. 그러므로 세례와 믿음과 의롭게 됨은 하나인 것이다.⁵⁾

그러므로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βαπτίζω, 즉 물을 뿌리어(혹은 잠기게 하는) 씻는 의식을 통하여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관계,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예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예식에 있어서 물에 잠그든가 물을 뿌리든가 하는 형식은 그 자체로서 차별성은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 믿음의 확인과 더불어 즉각적

3) Ibid., p. 25.

4) Ibid., p. 41. 존 머리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강물이나 물웅덩이 등은 식수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매우 정결하게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행했던 베드로의 세례 등 초대 교회의 군중을 상대로 한 세례 의식이 오직 침례의 형태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5) Michael Green, 『Baptism, Its Purpose, Practice and Power』(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8), p. 22.

으로 시행되었고 장소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살핀 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행 10:47) 하면서 즉시 세례를 허락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받고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음은 분명하다(행 10:43, 11:1, 11:18, 15:7).⁶⁾ 따라서 세례가 은혜의 표시이며 수단이지 세례가 은혜를 주거나 혹은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성립시키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세례예식의 본질과는 맞지 않은 주장인 것이다.⁷⁾

2) 성령의 역사로서의 세례

신약성경에서의 세례는 언제나 성령의 사역과 함께 등장한다. 특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세례와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에서의 세례 혹은 세례받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과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성령 세례(baptism of the Spirit)는 곧 성령의 은사(gift of the Spirit)와 동일시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세례와 성령이 함께 언급된 적은 모두 7회인

6) John R. Stott, 『Baptism and Fullness』(London: Inter-Varsity Press, 1992), p. 37

7) J. Murray, p. 111-2.

데 이중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6회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한번 언급되고 있다. 복음서에 나오는 네 번의 언급(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의 공통점은 모두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고 회고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외에 유일하게 세례와 성령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곳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다.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했다.⁸⁾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의 세례는 성령의 역사와 동반되었으며 이것은 죄 사함과 믿음의 과정이 전제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성령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성령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 교회에서 행해지는 믿음과 중생을 전제로 베풀어진 세례와는 구별된다.⁹⁾ 또한 성령세례는 ‘성령의 충만함’(행 2:4),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 부어주심’(행 10:44, 45, 47; 11:15, 16)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¹⁰⁾ 즉 성령세례는 구원 이후에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체험으로 각자에게 임하는 것으로서 가장 쉽게는 ‘성령의 충만’(fullness of the Spirit)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경험했지만 성령 충만함은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것은 중생, 즉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성령에 대한 체험이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 즉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에 근거한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교회가 채택할 세례의 형식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최초로 적용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8-41절인 것이다. 즉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제자들은 성령충만 곧 성령세례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탄식했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선포했다. 그 날 베드로는 그 말을 받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숫자가 삼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

8) John Stott, p. 38-39.

9) R. A. 토레이, 「성령세례」(서울: 나단 1988), p. 10-11.

10) Ibid., p. 8.

을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주었다.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전제된 세례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되었으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부와 성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선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성령세례와 세례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에는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다. 성령세례는 성령께서 주체로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임했고 구원역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례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증생을 전제로 혹은 그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이 베풀었다. 사도행전 2장 38-41절의 세례가 이에 해당된다면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라고 언급한 내용은 고넬료 등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세례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인가 아니면 반복적인가,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세례이건 세례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고전 12:3),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줄 수 없

11) 원종수, 「세례의 신학」(부산 참빛사, 1999), p. 229.

기 때문이다.

2. 세례의 교회사적 의미

1) 요한의 세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승천 이후부터 시행(행 2:38-41)

승천 직후부터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세례는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이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가시적인 통로 역할을 하였다.

2) 죄사함 이후에 장소와 시간, 대상에 구애 받지 않고 즉각 주어졌다(행 2:38-42)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마술사였던 시몬에게도 세례를 주었고(행 8:12-13) 얼마 후에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고 물 있는 곳에서 즉시 세례를 주었다(행 8:38). 아나니아는 바울에게(행 9:18) 바울은 또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의 집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었다(행 16:15).

3) 교회의 생활과 의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¹²⁾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활동한 터틀리안은 “세례에 관하여”(On Baptism)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세례 의식을 정형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때의 세례식은 매 주일마다 가졌던 성찬식과는 달리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거행되었다. 당

12)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 121-125.

시 세례식은 기독교의 부활절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 번씩 행해졌는데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사도적 전통'(Apostolic Tradition)에 따르면 세례 지망자들은 세례 전 목요일에 목욕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례식에는 항상 신앙고백이 함께 행하여졌는데 그 신앙고백은 바로 초대교회에 이미 존재했던 '세례식의 신앙고백'(Baptismal Formula)이 사용되었다.¹³⁾

4) 3세기에 접어들면서 교리문답 제도 도입-체계화

세례식이 보다 체계화된 것은 3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교리문답 제도가 도입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교회 입교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를 아주 길게 하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신청하면 그들의 생활 태도와 직업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마침내 세례 지망자로 발탁된다 하여도 실제로 세례를 받기까지 3년 동안을 세례 지망자로 있으면서 교리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야 했다.¹⁴⁾ 터툴리안의 경우는 참되게 살 준비가 될 때까지 세례를 미루도록 권면하기도 했다.

5) 가톨릭의 세례

가톨릭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세례는 죄의 용서, 새로운 생명으

로의 탄생, '하느님'의 자녀 즉 상속자가 되는 통로임은 물론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이 된다고 가르친다. 더구나 세례를 받게 되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인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만 다른 '성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교리서에 따르면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과 세례 받고자 하는 원의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신앙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¹⁵⁾

3. 세례의 선교적 의미

중세에는 세례가 왕권에 의해 실시되기도 했고 로마 교황청의 지속적인 선교현장에는 언제나 세례가 행해졌다. 영국의 경우도 오세르의 주교 게르마누스(429년경), 어거스틴(597년경), 비드(Bede, 673-735)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을 찾아서 수도원을 세우고 세례를 행하며 선교적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로 영국교회는 점차 유럽 전체에 교회를 세우고 개혁하는 일에 로마교회의 주요 동맹 세력이 되어 갔다. 세례는 한국의 선교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었다. 아펜젤러는 1886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딸에게 세례를 실시하였고 언더우드도 1887년 서경조를 시작으로 세례를 실시했다. 즉 선교가 있는 곳에는 세례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 주는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을 구별하기도 하였다(고전

13) Ibid., p. 123.

14) Ibid., p. 125.

15) 서울대교구 사목국, 「예비자교리서 초대받은 당신」(서울: 가톨릭출판사, 1989), p. 171-4

1:14-17).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다.

4. 한국 군선교 현장에서의 세례

1) 한국 교회와 세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례는 만 14세 이상의 신자에게 학습 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주도됨 되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 만 16세가 되면 입교의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며 그것을 근거로 입교인의 의식을 행하게 한다. 한국교회가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베드로에 의해 실시되었던 형태의 세례의 정신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을 교육 및 신앙 관찰 기간으로 정하여 교회법에 명시해 실시하고 있다. 성령세례에 관한 부분은 교회법에 명시할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관찰도 불가능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교회가 공중 앞에서 실시하는 세례는 성령세례와는 구분되는 형태의 세례의식인 것이다.

2) 진중에서의 세례

현재 한국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례는 한국교회의 세례에식과 그 맥을 같이한다. 다만 세례교육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대신 믿음의 고백이 확인되면 즉시 세례를 베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세례기간이 짧은 부분은 일반 교회의 세례과정과는 차이가 나지만 군대가 선교현장이라는 것과 시급성

을 요한다는 것 그리고 신약성경의 세례가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행해졌다고보다는 죄 사함과 믿음을 근거로 행해졌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용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논의되는 진중 세례식은 성령세례나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의식과는 다른 영접한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제3의 형태로서의 세례식을 의미한다.

3) 세례운동의 시작(제1기 합동세례운동)

가) 최초의 합동세례식

군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21사단 66연대에서 장로교 합동측 이상강 군목이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포함한 154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기원이다. 당시 연대장 유정목 대령이 연대 군목인 중위 이상강 목사에게 세례를 자청하여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합동세례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이를 크게 보도하였다. 동년 11월 25일에는 26사단에서, 열흘 뒤인 12월 5일에는 5사단에서, 이듬해인 3월 9일에는 28사단 81연대에서 각각 합동세례식이 연이어 베풀어졌다.¹⁶⁾

16) 육군본부, 「군종 50년사」(대전: 육군본부 군종감실, 2002).

기독교의 합동세례식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자 천주교에서도 이듬해부터 김수환 추기경을 선두로 합동 영세식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972년 3월 8일 제28사단 81연대에서 3월 26일에는 6군단에서 1천여 명의 장병들이 김 추기경으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이듬해인 1973년 1월 12일에는 11사단에서 80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계식이 최초로 실시되어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교가 공히 군을 대중 선교 및 포교의 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표1 합동세례식 초기의 세례 현황¹⁷⁾

일자	부대	수세인원	집례자	비고
1971. 9. 13	21사 66연대	154명	중위 이상강 목사	합동측 군목
1971. 11. 25	26사 사령부	1,460명	중령 최세태 목사	
1971. 12. 5	5사단	1,005명	유동근 군목	양평초교 이용
1972. 3. 9	28사 81연대	1,009명		
1972. 4. 25	20사단(연합)	3,478명	중령 김태동 목사	

나) 당시의 합동세례식은 전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에 의한 천주교 영세식과 불교 수계식도 시작, 전군 신자화 운동과 1인 1종교 갖기 운동, 그리고 합동세례식과 영세식, 수계식의 결과 군내 신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표2 최초의 신자현황(53)과 합동세례식 직후 3년간 신자 통계¹⁸⁾

연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병력대비(%)
1953	28,652	5,694	5,055	15,850	55,151	-
1971	-	-	-	-	208,526	33%
1972	-	-	-	-	266,757	44%
1973	202,360	43,080	42,082	-	292,379	

다) 합동세례식운동의 부작용

17) 육군본부, 「군종 50년사」(대전: 육군본부 군종감실, 2002), p. 90.

18) 남송현, “군선교 전략으로서 훈련소 진중세례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충신대학교, 2002), p. 37, 71-2.

합동세례식과 영세, 수세식의 과열은 일부에게 국민의 총화단결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명분을 주었고 이윽고 천도교 및 대중교 지도자들이 “군중병과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대통령에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어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부실 신자의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①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는가 ② 세례 받을 때 주초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③ 세례 신자로서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교육은 충분했는가 그리고 십일조 헌금의 시행 상태는 어떠한가 ④ 세례 문답의 과정은 정확했는가 ⑤ 부대의 특수한 분위기 때문에 강요된 신자는 아니었는가 ⑥ 세례를 받은 후 신자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다.¹⁹⁾

4) 2차 합동세례식운동(제2기 합동세례운동)

1990년 논산 훈련소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교육사령관이던 김진영 중장에 의해 발의되고 주도되었다. 그는 당시 교육사 예하 부대 군목 18명을 공관으로 초대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군 신앙, 전력강화를 위해 세례운동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19) 육군본부, p. 90-92.

전군 신자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합동세례식은 기성교회와 세례과정과 달리 속성으로 그것도 신앙을 검증하지 않은 채 무자격 신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1972년 4월 21일에는 군 첩보기관으로부터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의 침체, 특정종교 강요 및 편파적 보급으로 인한 가짜 신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에서는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신자화 운동 지양, 엄숙한 성례식 거행, 무종교인을 상대로 신자화 운동 전개할 것 등을 지시하게 되었다(군종 50년사, p. 91-92).

사제로 마련한 십자가 목걸이 10만 개를 제작하여 봉헌하였다.

5) 비전2020 운동 전개(제3기 합동세례운동)

1971년(제1기)과 1990년(제2기)에 이어서 1996년(제3기)에는 그동안의 합동세례운동의 모든 노하우를 결집하고 보다 정책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된 비전2020운동이 그해 2월 예비 육군대장인 이필섭 전 합참의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2년 뒤인 1998년 2월 23일에는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개설되었고 본격적인 제3차 합동세례운동을 조직, 건인하는 데 앞장섰다('90년 이후 '00년까지 10년간 합동세례식 운동에 의해 170만 명이 수세).

6) 진중 교회당의 건축

합동세례식은 진중 교회당의 건축운동으로 이어져 제2, 제3기 합동세례운동이 전개된 만 10년('91-'00) 동안 교회당 386동을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했는데, 이는 그 이전 40년 동안에 신축하거나 개축한 교회당보다 많은 숫자의 교회당이 10년 동안 신축 혹은 개축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2, 제3기의 합동세례식운동이 세례식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군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군선교가 유무형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증거한다.

5. 비전2020운동

1) 비전2020운동의 기원

가) 기원

비전2020운동은 1996년 2월 예비역 이필섭 장로에 의해 천명되고 당시 기독교장교회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나) 전개

1998년 2월 23일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비전2020실천운동본부'를 군선교연합회 내에 개설하였다.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한국교회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군목 파송 10개 교단²⁰⁾ 총무와 교단장이 모여 비전2020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선언하였다. 이때부터 비전2020운동은 기독교장교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현 군선교연합회), 군목단, 그리고 민간교회가 연합하여 21세기 민족 복음화를 위한 명확한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개해 나가게 되었다.²¹⁾

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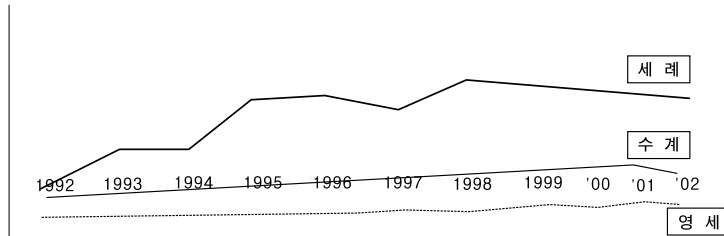
비전2020운동의 핵심은 군에서 매년 22만 명의 새로운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존 세례 신자를 포함하여 매년 25만 명을 사회로 환원시켜 25년 후인(당시는 '95년) 2020년까지 총 625만 명의 신자를 확보하여 이들의 가정까지 복음화하고 국민의 75%인 3,7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가진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²²⁾

20)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합동, 통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21)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제2회 한국 군선교심포지엄 자료집」(서울: 군선교연합회, 2002) p. 41.

22) 한국기독교장교연합회, 「군전도방법과 21C 군선교전략」(1997), p. 8, 12.

표3 10년간 세례 영세 수계 추이



2) 비전2020의 성과와 비판

가) 성과

(1) 세례장병의 양적 증가

표4 10년간 세례 영세 수계 현황²³⁾

종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세례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영세	-	3,397	3,908	3,915	4,739	6,597	6,597	10,618	14,512	21,387	19,687
수계	-	63,580	62,865	63,118	62,136	77,570	77,570	80,607	80,539	83,317	81,542

* 세례는 군선교연합회에서 발표한 국군 통계이며 영세와 수계는 육군군종 50 년사에 수록된 육군의 통계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세례는 95년(186,000 명)과 98년(207,951 명) 대폭 증가했으나 94년 이후로는 대체로 18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전2020운동이 시작('96)되기 전부터 이미 90년도에 시작된 제2기 합동세례식 운

23) 육군본부, p. 587.

동 이후로 세례 장병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²⁴⁾

(2) 한국 교회의 21세기 민족복음화를 위한 교두보로서 학원선교와 함께 단기간에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3) 후방지원 개념으로 1,743교회를 후원교회로 1,372교회를 준회원교회로 확보하여 총 3,115교회가 군선교에 적극적인 교회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는 이 운동이 출발할 당시 목표 회원교회가 1,000개였던 것에 비해 놀라운 양적 증가를 보였을 뿐 아니라 군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4) 모든 군목들이 가지고 있던 '군복음화' 혹은 '군선교'라고 하는 선교적 이상을 구체화하여 한국 교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나) 비판

(1) 노출된 문제점²⁵⁾

다종교 사회에서의 선교 독식은 필연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자극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미 종교간의 갈

24) 예에 참석자는 오히려 2002년이나 1993년이 비슷한 수준(750만 명)을 보이고 있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간 1,1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오히려 300-400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군종 50년사, p. 586).

25) Ibid., p. 6. 한국기독교장교연합회는 비전2020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앞으로 발생할 단계와 과제에 대하여 예견하였다. 즉 양적 성장에 비하여 양육과 제자 훈련이 어렵고 미흡하며 많은 세례신자에 비해 훈련된 제자가 많지 않으며 군목 한 명당 5개 교회를 담임하는 과중한 임무, 군종병의 대대급 이하 비인가 문제, 재정 부족, 군목의 계급구조 취약 등을 그 예로 꼽고 있다.

등요소를 잉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교는 기독교의 독점적 진리 체계에 대한 일반화의 과정이기에 군 내외에서 이에 대한 불편한 소리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조직화, 정책화, 구체화된 선교 전략은 있었지만 이 운동의 특성상 비밀의 원칙이나 정보 차단 원칙 등이 초기 단계부터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홍보에 주력한 나머지 선교전략과 선교 결과 그리고 심지어는 방법론까지 노출되어 타종교에게 비판과 모방의 빌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복음화 중심에서 세례화 중심으로의 본질 왜곡²⁶⁾(세례=복음증거라는 비신학적 공식 성립)

비전2020운동이 한국교회의 국내 선교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운동성을 띠게 되자 세례 숫자의 증가에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1기 세례운동시부터 제기되었던 이른바 부실신자의 양산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 세례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세례 행사의 진행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일까지도 목격되기에 이르렀다.

(3) 부실신자 양산의 우려

최근 한 부대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들의 신앙상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세례장병 중 48%는 세례는 신앙을 가지게 된 표현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응답(그러나 입대 전 사회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은 78%가 세례는 신앙을 가졌다는 표현으로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례 받은 장병의 82%가 만드

시 세례 받은 종교 즉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사회에서 세례 받은 병사들은 65%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 심지어 세례 받은 병사들의 약 70%가 세례 받은 것과 상관없이 종교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사회에서 받은 병사는 5%). 훈련소 세례장병의 25%(사회 세례장병, 51%)만이 월 5-8회 정도 종교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며, 세례 받게 된 동기는 분위기(26%)나 먹을 것(20%) 때문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13%는 강압에 의해, 신앙적 동기는 4%(사회, 30%)에 불과했다. 훈련소 세례장병의 11%는 세례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고 했고 16%는 세례식 행동요령을, 신앙적 내용은 18%만이 기억했다.²⁷⁾

(4) 질적 가치의 문제

비전2020운동에도 불구하고 군 내 신자 추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타종교의 도전으로 인하여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비전2020운동이 전개되기 전인 '93년도의 세례 숫자는 128,000명이었는데 이 운동 후 가장 많은 세례자를 기록한 '99년(216,080명)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신자 장병 수는 5천 명 정도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연간 세례 숫자는 8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신자 장병 수는 5천 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신자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단적으로 본다면 세례장병의 숫자와 신자 수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년 18만 명 이상에게 베푸는 세례는 그들의 신앙결정

26) 류호근, “효과적인 해군 군선교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서울:총신대학교 1998), p. 26.

27) 남송현, p. 83-93.

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세례 과정에서의 교육이나 양육체계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5 육군 최근 10년간 신자 통계²⁸⁾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433,597	446,565	447,918	431,752	417,097	429,172	432,573	427,218	438,449	416,026
기독교	242,464	255,549	249,286	245,424	239,604	248,137	247,936	244,858	253,059	229,044
천주교	67,349	61,574	66,525	61,779	59,986	61,030	58,918	60,825	66,169	71,275
불교	123,184	128,627	131,444	123,754	116,747	119,101	124,965	120,732	118,499	114,682
기타	600	815	663	795	760	904	754	803	722	1,025

한편 국방부 군종실에서 발표한 전군 신자 통계를 종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2001년 신자 국군 신자 통계²⁹⁾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계
기독교	27 만(56%)	3 만(54%)	2 만3 천(50%)	32 만3 천(56.%)
천주교	7 만(16%)	8 천(14%)	9 천(19%)	8 만7 천(16%)
불교	13 만(27%)	1 만6 천(31%)	1 만4 천(30%)	16 만(27.5%)
계	47 만	5 만4 천	4 만6 천	57 만(99.5%)

* 종교별 %는 신자 장병 대비이며 국군 전체 장병 중 신자는 57만 명으로서 전체의 87%인

28) 육군본부, p. 588.

6. 진중세례식의 현실 진단과 개선 방향

1) 현 실태-본질과 원칙의 상실 위기

가) 성과(숫자) 지향

이를 위해 충분한 교리교육이나 신앙고백 없이 세례 주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와 믿음이 수반되는 성경적인 세례와는 관계가 없는 행사용 의식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세례와도 관계가 없는 세례 아닌 세례인 것이다. 강압적으로 동원하는 식으로 세례 주는 경우나 기독교간부들을 이용한 우회 압력수단의 발휘 끝에 세례 주는 경우, 지나친 간식으로 세례를 유도하여 세례 주는 경우 등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세례는 용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세례’인 것이다.

나) 세례식의 과시용 행사(이벤트화)로의 변질 우려

진중세례식이 교회나 교회 내의 부서간의 선교 업적 제고용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교의 본질을 염두에 두지 않는 행사 중심의 세례식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다) 군중활동의 왜곡과 편중-세례식은 군중활동의 부분

29) 국방일보, 2002년 4월 29일, 11258호. 각각의 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기에 표면적인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통계를 근거로 볼 때에 기독교의 경우 2000년과 2001년에 18만 명 내외의 세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 통계로는 27만 정도밖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세례와 복음화와의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세례 장병들이 어떤 의식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중의 부분³⁰⁾

현재 한국군은 육·해·공군 공히 엄청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육군의 경우도 ‘장교단의 정신혁명’이라는 구호 아래 총장으로부터 초급장교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을 깎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병영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복무기간의 단축, 자유시간의 확대, 분대형 내무실로의 변화, 병사 상호간의 지시 및 명령금지, 분대장 중심의 병사조직 강화, 군기 문란에 대한 예방 및 조치강화, 군 내 사망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사고의 예방강화, 악성사고 근절을 위한 군중병의 상담요원화 등 군 내에서의 군중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세례식은 군중활동의 출발이며 신자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신자가 있어야 신앙전력화도 가능하다. 신자화운동은 곧 신앙전력 강화운동이다. 그러나 군중활동이 곧 신자화운동과 신자와의 관계만을 고려한 활동은 아닌 것이다. 광의의 군중활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세례운동에 의해 차단되거나 가려진다면 진중 세례운동뿐 아니라 군선교 자체가 근원적으로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 타종파와의 갈등 및 경쟁 초래

(1) 천주교

최근 군중교구에서 강력한 선교의지를 표명하고 군중신부들에게 이를 지시하고 있다.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을 12주에

서 5주(신교대 종교행사 참석 가능 기간)로 줄이고 신교대마다 공소를 세우고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 시행하는 총 영세 숫자의 절반이 군에서 시행하는 영세 숫자이다. 논산 훈련소의 경우 천주교, 불교의 종교행사 참석자는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독교의 경우 그만큼 줄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 원인을 깊이 성찰해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2) 불교

천주교보다 소극적이기는 하나 군승단 등에서 집요하게 포교 요충지로 부각시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비전 21이라는 군 포교 전략을 확정하고 다방면에서 포교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비전2020 운동은 지나친 양적 팽창을 통해 타종교의 선(포)교에 눈을 뜨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세례 숫자의 감소와 질적 퇴보(통계)

운동의 전개가 지속될수록 세례 숫자와 신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략적, 전술적 수정이 요구된다.

바) 세례식에 치중하여 양육과 신자관리 소홀

현실적으로 볼 때 적은 군복 숫자에 많은 병력 수와 교회 수는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사) 지나친 세례행사 집중은 군의 불신 초래 -종교이기주의로 매도³¹⁾

30) 군중활동의 4대 영역은 종교, 교육, 선도, 기타 발전업무인데 그 중에서 세례는 종교활동의 영역 중에서 성례의 영역에 속하며 성례 중에서도 성찬과 세례 중 한 부분이다.

31) 국방부 인사복지국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개발연구센터에 의뢰하여 군중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현 군중제도

2) 개선 방향-본질과 원칙의 준수

가) 세례행사보다 전도(복음화)에 역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고전 1:17)라고 고백한 정황과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명백히 선교현장에서 세례와 복음전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복음전파는 세례에 우선하며 복음전파 없는 세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소규모로 자주 시행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의 전환 시급

논산 훈련소 등과 같은 대규모 훈련소에서는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단 훈련소나 공군 교육사, 해병대 교육단 등에서는 매 기수별로 세례 교육을 실시하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 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형 세례식은 지양하고 소규모로 자주 실시하여 군목 1인 혹은 지역단위 군목단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과 규모로 소수다회(小數多回) 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선물공세를 지양하고 간식 등으로 병사들을 유인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세례=선물, 종교행시=간식의 등식을 깨버려야

의 문제점들을 종단 종파간 갈등, 포교 위주의 군종장교 활동, 즉 교세확장에 치중하는 등으로 인해 군종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군종의 기본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도 '03. 4. 25 군종감실 업무보고시에, 절대로 인격지도 교육시간에 선(前)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과 군종장교들간의 팀워크를 다져 부대 내에서 목사, 신부, 법사 사이에 반목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군중 본연의 임무 달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함.

한다. 세례=복음, 종교행시=예배와 안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능의 회복으로 장병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어떤 사단의 경우는 세례식에 특별한 선물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도 세례식을 타부대와 같이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세례식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 선교 관계자 외에는 비전2020의 정책이나 세례행사의 실적을 비공개로 하여 타종교 자극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매체에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등급을 부여하여 관리자가 엄격히 유출을 통제하고 문서 생산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 복음제시와 구령을 위한 시스템 마련

군목 개인의 목회관에 따라 좌우되는 폭을 최소화하여 복음제시의 내용을 설정해 주거나 관련 자료 제공 등(진화론 비판, 저명인사 간증 테이프 제작, 영상 선교를 위한 기기 지원 및 소프트웨어 지원, 정기적인 영상 자료 제작 지원, 예를 들면 뮤직 비디오, 폰트 등)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중세례운동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 신병 및 간부 양성기관에 집중

바) 예하 연대나 대대급(육군의 경우)에서는 이삭줍기 차원에서 실시

사) 군 교회 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신자 관리

아) 일반 군중활동과의 조화를 이룸으로 군종장교로서의 신뢰 획득이 중요

자) 병영 내에 기독교 문화(지휘문화, 놀이문화, 윤리의식 제고, 가정사역 등)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 선교의 환경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차) 공정하고 정의롭고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

카) 세례식은 세례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중장교 확보나 신자 수 늘리기 등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한다.

맺는 말

세례는 복음의 선포로 인한 회개와 믿음을 전제로 베푸는 의식이다.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지상 교회에 위임하신 과제이다. 진중에서 이러한 세례가 운동성을 띠고 베풀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의 진중세례와 1, 2, 3기에 걸친 진중세례운동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안팎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민족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세례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정책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기독교 내부는 물론 타종교에서의 도전과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세례운동은 21세기 민족복음화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역이다. 앞으로 이 운동은 병영과 민간교회에서 더욱더 뜨겁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진중세례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청년들이 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더 바르게, 진지하게, 공정하게,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선교의 현장을 보존

하는 길이며 군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타종교와의 지나친 경쟁은 종교의 기본적인 본질조차 상실한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곧 선교현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비전2020 운동은 한 장로에 의해 시작된, 그러나 전 군목과 민간교회가 함께 매진할 가치가 있는 선교의 주제이다. 이 운동이 한국 군선교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으며 자칫 소실될 뻔한 각급 교육기관과 훈련소 등에 복음의 불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혜를 모아 문제점은 보완하고 비전은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진중 복음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